

환영받지 못하는 종편 오늘 개국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 야권, 축하행사 보이콧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탄생한 종합편성(종편)채널이 12월 1일 개국한다.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종편 4사는 이날 공동 개국행사를 열고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온갖 특혜를 얻고 출범하는 그들만의 ‘자축 광파르’를 지켜보는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종편 4사는 개국행사에 정·재계 인사 6,000여명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모두 참석을 보이콧했다. 정부가 여론 다양성 및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워 종편 도입을 강행했지만, 결국 종편 채널이 모두 보수 언론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국행사 불참은 물론 축하 영상메시지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또 종편 개국에 대해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음모의 최종점점이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군소방송 광고 축소 현실화 채널 연쇄이동 피해까지 언론주 등 22개 시민단체는 종편에 투자한 KT 불매운동

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편은 언론약법 날치기의 산물이자 권언유착의 산물”이라며 “보수 일방의 목소리가 언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MB정권의 우군을 자처해 온 보수 언론의 새 미디어 탄생을 앞두고 환영의

종합편성채널 관련 일지

- 2008.12.3 한나라당, 신문·방송 경영 허용하는 미디어법 관련 7개 법안 국회 제출
- 2009.7.9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제시
- 22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 뒤 이윤성 국회의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 통과
- 23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 10.29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유효 결정
- 2010.1.1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18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등 선정 일정 발표
- 12.31 방통위,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 2011.12.1 4개 종편과 1개 보도채널 개국

인사 대신 우려를 표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언론시장이 공익·공공성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법칙만 지배하는 괴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편의 각종 특혜 책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군소방송을 비롯한 언론계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쏠



30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지점 앞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을 비롯한 22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저회사 KT캐피탈을 통해 종편 4사에 83억여원을 투자한 KT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지고 있다. 종편 4사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에서 모두 지상파에 근접한 14~20번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른 채널 연쇄 이동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지상파 방송인 OBS는 일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채널 변경을 통보받았다. OBS 노조에 따르면 SO 측은 “내년이 재허가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OBS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일방적인 종편 밀어주기 정책 때문에 기본 방송권역인 경기·인천 지역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종

편에 대한 도를 넘은 특혜가 지역방송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편 사업자들이 미디어렐(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국회 표류를 틈타 일찌감치 독자영업에 나서면서 광고시장은 무한경쟁의 정글로 치닫고 있다. 기업들이 한정된 광고 재원을 종편 개국에 맞춰 배분하다 보니 여타 매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역·종교 방송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신문 등 인쇄매체들의 광고수주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종편이 개국 이후 광고 영업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지역 민방이나 메이저가 아닌 방송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

다”고 우려했다.

종편이 결국 무리한 개국을 강행함에 따라 시민·언론단체들은 종편 반대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실제로 제작을 거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반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앞서 28일 담화문을 발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 현실에 들어갈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 세력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종편 반대 투쟁은 승인장 발부 직전 저회사 KT캐피탈을 통해 종편 4사에 총 83억여원을 투자한 KT에도 불포

이 튀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20여개 시민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날치기 처리로 제정된 미디어약법으로 태어난 조종동매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가 미디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 매체와 차별하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온갖 불공정과 정권의 특혜 덩어리 조종동매 종편을 밀어주는 데 동참하는 KT에 대해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투쟁과 저항을 보여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고경석기자 kave@hk.co.kr



감마선 폭발 'GRB 101225A'의 상상도. 중성자별과 헬륨별의 핵(가운대)이 섞일 때 나온 에너지가 곁에 있던 헬륨가스의 만나 빛을 내고 있다. NASA 제공

‘별의 죽음’ 새로운 사례 찾아냈다

(김마선 폭발)

한국 등 10개국 연구진 “두 개의 별이 합쳐져 블랙홀로 바뀌는 과정에서 폭발”

천문학 교과서 바뀔 수도

냉전이 한창이던 1969년, 미국은 핵실험 감시 위성 ‘벨라’를 쏘아 올렸다. 러시아가 비밀리에 핵 실험을 할 경우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을 잡아내기 위해서였다.

위성은 2년 뒤 임무를 마쳤는데, 73년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천체현상이 밝혀졌다. ‘빅뱅 이후 가장 격렬한 폭발’ ‘우주의 모든 별빛을 모은 것과 비슷한 밝기’라는 수식어가 붙는 감마선 폭발(GRB)이었다.

감마선 폭발은 별이 죽는 순간 내는 ‘마지막 비명’이다. 이때 태양보다 수억배 밝은 빛이 혼돈산 쏟아진다. 폭발의 지속 시간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폭

발이 2초 이상 되면 긴 감마선 폭발이라고 한다. 주로 무거운 별이 폭발할 때 일어난다. 폭발 지속 시간이 2초 미만인 짧은 감마선 폭발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껏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감마선 폭발이 새로 발견됐다. 임명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와 박수종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가 이끄는 초기우주천체연구단 연구원 6명을 포함한 10개국 34명의 국제공동연구진은 새로운 감마선 폭발을 관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현상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스위프트 위성이 발견한 감마선 폭발(GRB 101225A)에서 나타났다. 감마선 폭발은 발견한 날자로 이름 붙이는데, ‘101225A’라는 것은 2010년

12월 25일에 관측된 것 중 가장 밝은 감마선 폭발이란 얘기다.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NASA를 통해 스위프트 위성이 감마선 폭발을 관측했다는 연락을 받은 임명신, 박수종 교수는 당시 미국 텍사스주 맥도널드 천문대에 있던 초기우주천체연구단 연구원 4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크리스마스 파티도 물리치고 천문대에 오른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퀀 카메라’를 이용, GRB 101225A를 관측했다.

지구에서 43억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이 폭발은 무려 30분 이상 지속됐다. 길어야 수백 초에 그쳤던 이전까지의 감마선 폭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박 교수는 “GRB 101225A는 크리스마스에 천문학자인 저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이 폭발의 첫날을 유일하게 관측한 우리 자료가 새로운 우주폭발현상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두 개의 별이 합쳐져 블랙홀로 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내부 연료인 수소를 모두 다 써버려 헬륨 가스만 남은 ‘헬륨별’이 중성자로 이뤄진 ‘중성자별’과 결합하면서 감마선 폭발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GRB 101225A의 폭발 지속시간이 유독 긴 이유를 말해준다. 이전까지 발견된 감마선 폭발은 한 개의 별이 죽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폭발 지속시간이 짧았지만 이번엔 두 별이 합쳐지며 일어난 현상이라 폭발 지

속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얘기다.

연구진의 설명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천문학 교과서도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별의 죽음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별이 나이가 들면 적색왜성을 거쳐 백색왜성이 되거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그런데 연구진의 설명처럼 중성자별이 다른 별과 섞여 블랙홀이 된다면 새로운 죽음의 경로가 추가되는 셈이다. 박 교수는 “90년대 이미 이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현상”이라며 “다른 우주 폭발 현상도 있을 수 있단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소개된 과학학술지 <네이처> 1일자엔 GRB 101225A를 전혀 다르게 설명한 스페인 연구진의 논문도 실렸다. 이들은 중성자별에 다기간 해석이 중성자별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면서 감마선 폭발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진위를 가리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